다놔야다얻을수있고다얻을수있어야다줄수있다

☞ 21면에서 계속

해 있습니다. 집에서는 사실상 손을 전혀 못 쓰는 상태인데 제가 결혼을 할 때 그 얘길 들었을 때는 그냥 무심히 흘려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외숙모 딸 되는 분이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더 내 가지고, 처 외숙모 얼굴도 모르지만 한번 공부를 시켜 볼까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로서는 교회 다니는 그 처제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큰스님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자 올라왔습니다.

큰스님 기독교를 다니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내가 이 세상에 출현을 했으니까 나부터 있는 겁니다. 나부터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든 가톨릭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그 주처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밖의 하나님 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더라도 주(主)는 반드시 나의 근본, 마음의 근본이요, 하나님은 그 하나의 근본으로 인해서 하나로 돌아가는 바로 당체라는 말입니다, 천체. 그러니까 '불교'라고 그랬습니다. '불'은 천체 생명이요, '교'는 전체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처는 처제 가슴에 있소.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가슴에 있는 거니까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아요."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일러 주고 아픈 사람도 그렇게 관하게끔 일러 주세요.

기독교를 믿든 뭐를 믿든 간에 살리려면, 기독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 이런 사소한 건으로 부담을 가지고 나누지 마시고, 그것도 역시 한마음이라고 해야죠. 하나로 돌아가요. 지구촌의 모두가 지구를 타고 하나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갈라져서 돌아가지 않죠? 하하하.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한테라도 주처는 너의 가슴에 있으니까, 그 가슴 깊이 들어 있으니까 바깥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말고 안으로다가 '주님, 당신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찾으라고 일러 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모두가 필연적으로 돌아가고, 인과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므로 거짓도 없고 우연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자기가 뿌려 놓고 자기가 기르고 또 거두고 이러는 거지 '우연히'가 어딨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질문자3(남)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회에 참석할 때마다 자주 경험을 하고 있는데, 스님이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에 그 소리를 들으면 몸에, 글쎄,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모르겠는데 전율을 느낀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큰스님 그것은요, 우리 마음이 동일하게 돌아가는 걸 모르고 나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만 한다면 전율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전체 돌아가고 전체 이어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이 진리를 담은 바로 살아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열을 받으려고 장치를 해 놨는데, 그 장치에 태양열이 받아졌을 때, 그 받아진 자체를 갖다가 내가 어떠한 용도에 전력으로 쓰려고 아주 강한 믿음을 진실하게 가졌을 때 그 전율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율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전율이 오는 경우 혹시나 남이 볼 때에 누가 될 것 같으면, '전율 대신에 뜻으로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내면 컴퓨터를 누른 거와 같아서, 전율이 남 보기에 누가 되지 않게 뜻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마음대로 응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세요.

질문자3(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 정신이라는 것, 의식, 영혼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늘 사용은 하고 있지만 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스님께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몸 안에 천차만별로, 가지각색으로 용도에 따라 구별이 된 의식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선이면 선, 악이면 악으로 말입니다. 또는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장본인이 내 몸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장은 무엇이냐?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그렇게 의식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바로 능력만 배출해 줄 수 있는 심봉과 같은 근본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근본! 그거는 부동합니다.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힘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심봉이죠.

그러니까 그 심봉에게 전부 맡기면, 돌아가면서 그 심봉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러니까 입력됐던 것이 심봉에 의해서 모두 없어지면서 새로 들어가는 마음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알고 믿고 행을 해야, 그게 체험도 되고 물리가 터지는 것도 알게 되고 나, 참나가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죠. 그랬을 때 자꾸자꾸 놓고 그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확 터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입력하는 것은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지금. 버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바꿔 쓰는 거죠. 언짢은 건 바꿔 쓰고 좋은 거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아주 지혜롭게 해 나가는 거죠. 해 나가다 보면 '아, 이것이 바로 하나로 돌아가는 한 혹성의 별성들 전체가 은하계처럼 내 몸뚱이 속에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생활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든지 모든 것을 선장의 그 심봉한테 맡기면…, 즉 말하자면 선장이란 이름해서 선장이지 자기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진아(眞我)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지
>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든지
> 모든 것을 선장의 그 심봉한테 일임하세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같이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그 부동한 선장한테 다 일임해 놓으면 내 심상대로, 생각한 그대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컴퓨터를 누르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되는 대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일러 드리면 잘 아시겠죠? 허허허….

질문자3(남) 큰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자4(여) 큰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올라온 신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제 경험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작년 12월 초쯤 됐는데요. 제가 여성 의류 대리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처사하고 둘이 집에 들어가면서 가게 문을 열어 놓고 들어갔어요. 홀딱 열어 놓고, 그것도 셔터 문도 올린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는 출입구 문까지 완전히 열어 놓고 둘이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사이에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차를 타고 휙, 문 열어 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저희 집 처사하고 애들이 공부하는 뒤에 앉아서 저녁 늦게 아이들이 공부 다 하고 들어갈 때까지 늘 관을 하면서 수행을 해 왔어요. 그날 저녁에도 관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제 그 마음자리에서인지 그때는 그것도 잘 모를 때였는데요, '무엇을 관하고 앉았느냐. 네가 나를 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난 그런 생각을 안 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날까?' 하다가 저희 집 처사가 주방에서 따로 관을 하다가 들어왔길래 아니, 이상하게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네가 나를 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금 지키고 있다.' 하는 게 느껴진다고 그랬더니 "둘로 보지 마라."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그걸 반복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소상하게 얘길 했더니 "그럼 주인공하고 대화를 한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랬는데 히죽이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셔터 문이 활짝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문도 열려 있고 안에 들어가는 출입구 문까지도 다 열려 있고. 아, 너무 놀라서 둘이서 막 뒤져 보고 금고도 열어 보고 그랬는데 전혀 아무 이상이 없고, 들어가는 출입구에만 신문 세 부가 던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집 처사 첫마디가 "주인공, 밤새도록 지키느라고 애썼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제 자신이 느꼈어요.

그 이후부터 정말 진정한 공부로 들어간 건지, 작은 체험뿐 아니라 이러저러한 체험을 제가 아주 피부로 느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돌아가고, 넉넉한 거는 없어도 마음들은 모두가 편안하게 서로 인정해 주고 아껴 주는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제가 공부가 잘된다고 신나라 했거든요.

또 큰스님 법문 테이프를 생활처럼 늘 들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생활을 위해서 수행을 했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어느 사인가 모르게 제가 수행을 위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수행하는 데 지장만 없으면 어떠한 문제도 나한테는 문제가 될 게 없다.'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는데,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큰스님 법문 테이프를 늘 눈만 뜨면 듣고 잠자기 직전까지 관하면서도 듣고, 관 안 할 땐 안 하는 대로 또 듣고 일을 하면서 듣고 그렇게 해 나왔는데, 요 근래에 테이프를 들으면서 제가 뭔가 모르게 아주 묘하게 터득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자꾸 와서 닿는데 그게 잘 안되고, 그거를 자꾸 터득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답답하고 머리도 무겁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진실하게 그것조차도 그 자리에 맡겨야만 순리대로 이게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거기에 자꾸….

큰스님 다 놔야 다 얻을 수 있어요. 다 얻을 수 있어야 다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명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문을 열어 놓고 자기도 하고, 때로는 잠가야 할 때는 안 잠그고 또 잠그지 않아야 할 때는 잠그고 들어가는 수가 많아요. 이거를 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 그 말이, '네가 나를 지켜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급하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막힌 자기의 보배입니까? 자기 앞에 보배를 두고 딴 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바로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자기 불성인 뿌리죠. 그 뿌리만이 바로 자기의 그 마음을 통해서 일러 주기도 하고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급하니까 그런 거지, 댁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죠. 하하하.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밉다 잘못한다 하더라도, 급할 때는 당기는 것이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거기만을 의지하고 거기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믿으면, 진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제 나무에서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가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4년 9월 4일 법형제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를 검색하시면 상세 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02·720·9600 maumtour.com

한국인을 위한 2022년도 항공좌석 관계로 9월 20일 마감입니다

달라이라마 친견법회

자비심의 가르침을 생생히 보여주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법문이 2022년 11월 25일부터 2일간 인도 북부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왕궁 앞에 있는 남걀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법회장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주최** | 여수 석천사 진옥(061-662-1607)
문의 및 접수 |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법회 동참 일정 (상세한 일정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A 팀 달라이라마 법문 8일(11월 22일 출발 -29일 도착)
(동참금 259만원-보시금 30만원 등 일체경비 포함)
11월 22일 인천-델리-암리차르 / 23일 암리차르-황금사원-다람살라 / 24일 다람살라 네충사원,정부청사, 박물관,링린포체 친견예정 / 25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 26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 27일 다람살라-행복한계곡 따시종-캄툴린포체 사리탑 기도-찬디가르 / 28일 찬디가르-델리 / 29일 인천공항 도착

B 팀 달라이라마 법문 및 남인도 순례 11일(11월 19일 출발 - 29일 도착)
(동참금 309만원-보시금 30만원 등 일체경비 포함)
세계 최고의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불교 최고의 아름다운 불탑인 산치대탑 등 순례

C 팀 달라이라마 법문 및 인도성지순례 15일(11월 22일 출발 - 12월 6일 도착)
(동참금 359만원-보시금 30만원 등 일체경비 포함)
달라이라마 법문 및 인도 불교 7대 성지순례-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나란다 대학-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

